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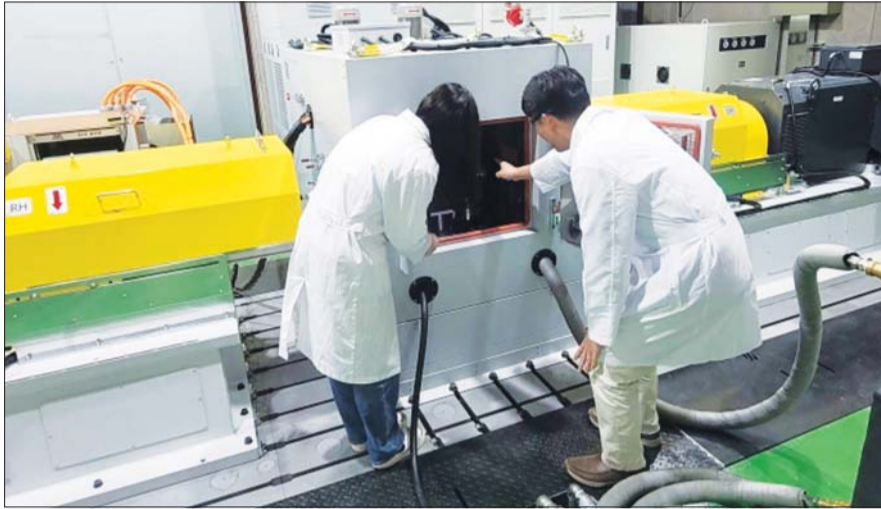
# 정유업계, 불황 속 영업이익 ↓... 실적 방어는 '유탄유' 한몫

수익 핵심 지표 정제마진 하락  
고급화·전기차용 유탄유 개발  
수요·공급면서 실적↑환경 조성  
영업익, 정유4사 총합 6114억 호조

국내 정유업계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탄유 사업이 실적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이며 실적 방어에 한몫을 해냈다. 정유사들은 유탄유 고급화와 동시에, 늘어나는 전기차 시장에 대비한 '전기차용 유탄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 ◆ 정제마진 하락 속에도 수익 올린 유탄유

1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유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4500억원대로 지난해 동기 4조7600억원에 비해 급감했다. 이는 정제마진 약세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 제품 수요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정유업계 수익의 핵심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지



SK엔무브 연구원들이 PT 다이내모미터 장비 앞에서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전기차 유탄유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난달 기준 평균 3.9달러에 그쳤다. 정제마진의 손익분기점은 4~5달러 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고 지난해와 상황을 비교하기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지난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확산 영향 등 대외적인 이슈로 원유 가격 급등으로 비축유가 수익을 견인했지만 지금은 팔수록 손해인 셈이다"라고 설

명했다. 유가 하락이 지속되는 이상 2~4분기 실적 개선도 쉽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정유사들의 유탄유 사업의 영업이익은 정유4사 총합 6114억원으로 불황 중 호조를 이뤘다. 유탄유 사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선박·항공 등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수익을 올렸다. 올해 1분기 유탄유 사업 부문에서 ▲

에쓰오일은 32.5% ▲SK이노베이션은 21.5% ▲GS칼텍스는 22.3% ▲HD현대오일뱅크는 10%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수요와 공급 면에서도 유탄유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유탄유 사업 호황의 배경이 됐다. 경유가 비싼 가격에 팔리자 정유사들이 유탄유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유탄유가 유가 하락 속에도 비싸게 팔린 것이다.

## ◆ 유탄유, 탄소배출 감소와 연료효율 높이는 효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유탄유는 내연기관차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에 정유사들은 유탄유 사업의 고급화와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SK엔무브는 사명을 바꿀 정도로 고급 유탄유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SK엔무브는 생산 제품의 75%를 수출할 정도로 유탄유 생산 능력이 높은 기업이다. SK엔무브의 유탄유(유탄유의 원재료) 생산 능력은 하루 8만300배럴로

세계 3위권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 효율 그너머로 무브'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내건 SK엔무브는 전기차에 쓰이는 유탄유 판매에도 관심이 많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절연성, 모터 냉각 성능 등이 요구된다.

SK엔무브는 단순한 내연기관 유탄유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더 깨끗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만들어 가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전기차용 유탄유 시장은 내연기관 유탄유 시장과 달리 뚜렷한 선두업체가 없고 고급 기술력이 요구돼 새로운 경쟁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급 유탄유가 제품의 효율을 높이면 유탄유로 움직이는 자동차·항공기·선박 등이 그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핵심 중 하나기에 유탄유는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소라는 목표를 가진 정유사로서는 유탄유 사업이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꼽히는 이유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포스코, 철강사 최초 스테인리스 신기술 '3관왕'

제27차 국제스테인리스협회 컨퍼런스  
삼성전자와 공동개발 통해 탄생 '눈길'  
가전용 고강도강 등 기술력 인정받아

포스코가 제27차 국제스테인리스협회 컨퍼런스에서 신기술 부문 3관왕에 올랐다.

글로벌 철강사 가운데 신기술 부문 3관왕을 차지한 것은 포스코가 최초다. 특히 금상 수상 기술은 가전 분야 수요 업체인 삼성전자와 공동개발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포스코는 10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7차 국제스테인리스협회 컨퍼런스에서 신기술 부문 금상, 은상, 동상을 모두 석권했다. 지난해 개최된 제26차 컨퍼런스에서 동일 부문 금상 수상에 이어, 다시 한 번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국제스테인리스협회는 원료 경쟁력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 제품.

확보, 신수요 개발, 친환경 전환 등 스테인리스 업계가 직면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토론했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세계 스테인리스 업계 대표 기구로, 2006년부터 회원사들의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 노력을 제고하자 신기술, 시장개발, 지속가능, 안전

총 4개 부문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신기술 부문에는 4개의 철강사가 총 8개 후보작을 출품했으며 포스코는 금상에 대형 프리미엄 가전용 고강도 430 DP(Dual Phase)강을 비롯해 은상에 모바일 기기용 비자성 고강도 316HN 강, 동상에 에어컨 냉매배관용 스테인리스-구리이종(異種)금속접합용 브레이징 용접 새로운 재료 개발로 3개 상을 모두 석권했다.

금상을 수상한 고강도 430DP강은 포스코 기술연구원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개발한 한소소재로, 기존 대비 소재 두께를 20% 줄여 경량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50%나 증가시킨 매우 혁신적인 철강 제품이다. 찌힘이나 굽힘에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프리미엄 냉장고 도어 등의 외장재로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책의 수도'에 등장한 LG전자 올레드TV

LG전자가 "세계 책의 수도"에 우아한 올레드 TV를 소개했다. LG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에 있는 도서관 "하우스 오브 위즈덤"에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포제를 전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브제컬렉션 포제는 도서관 1층에 열람 공간에 다양한 인테리어 오브제와 함께 배치됐다. TV 설치 고정관념을 깨는 디자인으로 조화를 이뤄 우아함과 절제된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했다. /LG전자

LG전자가 "세계 책의 수도"에 우아한 올레드 TV를 소개했다. LG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에 있는 도서관 "하우스 오브 위즈덤"에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포제를 전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브제컬렉션 포제는 도서관 1층에 열람 공간에 다양한 인테리어 오브제와 함께 배치됐다. TV 설치 고정관념을 깨는 디자인으로 조화를 이뤄 우아함과 절제된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했다. /LG전자

# SK지오센트릭 "순환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나경수 사장, '추즈 프랑스 씨밋' 참석

SK지오센트릭이 순환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은 사장은 오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열리는 프랑스 정부 주최 행사 '추즈 프랑스 씨밋'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나 사장은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재계 인사와 글로벌 기업 CEO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추즈 프랑스 씨밋은 프랑스 정부가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수의 기업 CEO들을 자국에 초청하는 행사로 지난 2018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카콜라, 화이자, 도요타 자동차 등 40여개국 약 270여명의 주요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참석 예정이다.

나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설립을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 파트너 기업 CEO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정·재계 관계자에게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사업을 알리며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은 프랑스 기업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기업인 수에즈(SUEZ), 재활용 핵심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루프(Loop Industries)와 함께 유럽 내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약 4억5천만 유로(약 6200억 원)를 투자해 오는 2027년까지 프랑스 북부 북부 생 타볼(Saint-Avold) 지역에 연간 약 7만톤 규모의 재활용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 2019년에는 프랑스 폴리머 업계 1위 석유화학업체 아르케마(Arkema)로부터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을 3억3500만 유로(약 44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삼성전자, 1분기 국내 에어컨 시장 절반 차지

무풍에어컨 시장 점유율 48.6%

삼성전자 무풍에어컨이 시장 점유율 절반에 근접했다.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국내 에어컨 시장 점유율 48.6%를 기록했다.

40% 안팎이었던 예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13년 43.6% 점유율을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45.5%, 2019년에는 37.6%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점유율을 이어왔다. 올 1분기에는 이를 넘어 과반에 근접한 것.

특히 1분기 판매된 에어컨 중에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비중이 전년 보다 2배나 늘었다. 삼성전자가 올해 고효율

에어컨을 크게 늘린데 이어 1등급보다도 10% 효율이 높은 무풍에어컨 갤러리까지 출시한 상황, 에너지 절약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한 셈이다.

무풍에어컨은 쾌적한 냉방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맥스' 냉방 대비 최대 90% 소비 전력을 절약해준다. 삼성전자는 무풍에어컨 갤러리를 모두 1~2등급으로 만들었고, 이보다 효율이 높은 에너지 특화 모델도 출시했다.

가정용 무풍 시스템 에어컨은 모든 모델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다. 창문형 에어컨 무풍에어컨 윈도우핏까지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

/김재용 기자